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들

생명나무 청지기 양승원

- 1회 노아의 방주는 사실일까? - 크기 재료 안전성...
- 2회 방주 속 동물들 이야기 - 동면, 탑승, 인도, 생존...
- 3회 공룡도 방주에 탑승했을까? - 새끼, 식생활, 육식?...
- 4회 방주 속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 - 예수 그리스도

1회 노아의 방주는 사실일까?

먼저 노아의 방주의 크기와 재료등에 대하여 살펴보자.

창조주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인류와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거대한 방주(Noah's Ark, תיבת נח *tabhah*)를 짓도록 명령하셨다.

노아 방주의 크기(창6:15-16)	
방주의 규격(장-광-고)	300:50:30cubit=137:23:13m
방주의 넓이(장*광*3층)	9,453m ²
방주의 총용적(장*광*고)	42,668m ³
방주의 배수량(총용적의 1/2)	21,334톤
규빗(Cubit)의 길이	45.6cm(18inch)
방주의 창문들	1*1 규빗

표 1 방주의 규격

그 배는 배수톤수(排水噸數, displacement tonnage) 가 2만 톤이 넘는 매우 큰 직사각형의 밀폐된 배로 그 크기는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으로 한 규빗을 어른의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으로 잡아 대략 45~50cm로 잡았을 때 길이는 138m, 폭 23m, 높이14m의 거대한 선박이 된다.(창6:15-16) 당시에 발육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는 것을 감안하여 1규빗을 50cm 이상으로 잡아 계산

한다면 훨씬 더 큰 배가 될 것이다.



그림 1 노아의 방주 비율 및 크기

이와 같은 규격을 가지고 있던 방주는 1884년 이태리의 '에투리아(Eturia)'호가 출현하기 전 까지만 해도 인간이 건조한 배 가운데 가장 큰 배였다.

방주의 재료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잘 썩지 않는 **잣나무**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창세기 6:14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gopher-고페르(גפר)'는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으나 우리말 성경에는 잣나무, NIV성경에는 'Cypress wood(삼나무 일종)', KJV에서는 히브리어 음을 그대로 본떠 'Gopher wood'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방수를 위해 **역청**을 내부 틈새에 발랐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kopher*-코파르(כפר)'로 이 단어는 송진, 역청이라는 뜻 외에 몸값, 속전, 용서, 덮어줌, 대속, 속죄 등의 뜻을 가진다. 그리고 어원상으로 보면 '*kapher*-카파르(כפר), 덮어주다(to cover)'에 해당하며 '~에 송진을 칠하다, 역청을 칠하다'라는 의미 외에 **덮어주다, 진정시키다, 속죄하다(atonement, 레17:11 사용) 등의 뜻을 가진다.** 성경에서 역청은 사해(死海)와 그 부근에서 자연적으로 생겼던 **비투멘(bitumen)**이라는 휘발성 물질로 현재 비투멘은 자연적으로 혹은 열분해적으로 얻어지는 원유에서부터 아스팔트광(asphaltite)에 이르는 휘발유성 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이다. 또한 역청은 송진과 나무를 가열하여 증류할 때 얻어지는 숯을 석어 만들 수 있으며 아스팔트와 비슷하고 **방수, 방충, 방음효과가 탁월**하여 석탄이나 석유가 발견되기 이전부터 과거로부터 사용되었다. 아기 모세를 구하기 위해 만들었던 **갈대상자(Ark)**에도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출2:3).¹⁾

1) Henry M. Morris, The Genesis Record, Baker book house 1991, pp.180-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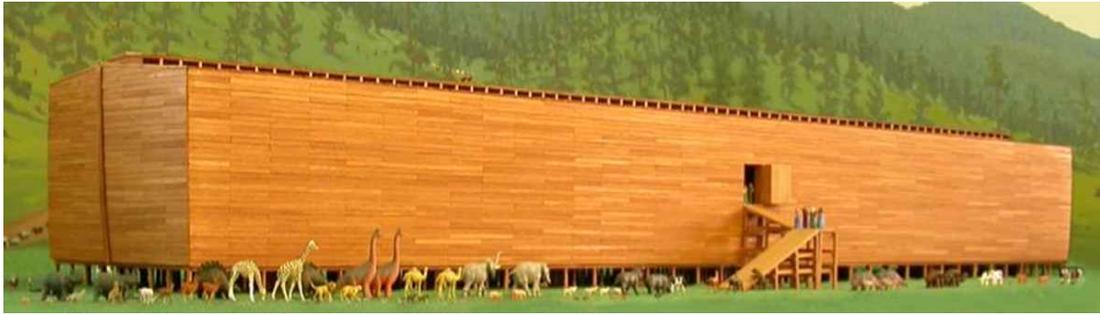


그림 2 노아의 방주 예상도

방주의 모양은 긴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추론 할 수 있으며 3층 구조에 위로부터 1규빗의 창(창, tsohar)들이 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참조2). 항해를 위해 앞뒤를 잘빠진 유선형의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성경의 묘사만으로는 알 수 없다. 오히려 **키와 닳이 없는 방주**(方舟, 전적인 주님께 의지)였으며 전 세계적인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명선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거대한 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아가 만든 현재까지 만들어진 배중에는 최고의 작품으로 **건조에 걸린 기간은 최대 120년** 이상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창6:3). 노아이전에 가인은 이미 성을 쌓았고 가인의 6대손인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들을 만드는 금속기계 기술이 있었기에 노아가 이러한 기술들을 충분히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평균 크기를 양(羊)의 크기로 환산했을 때 방주에 **12만 5천 280여 마리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농구코트 20개** 이상의 넓이이며 240마리의 양을 기차 한 대에 실을 수 있으므로 **기차 522대분**에 해당하는 방대한 크기이다.

방주의 안전성

이러한 방주모델이 격심한 풍랑에 가장 안전한 구조라는 사실이 **한국창조과학회와 해사기술연구소**가 1992년 6월부터 공동으로 실시한 실험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연구소는 선박의 선형시험 및 관련성능 평가업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서 선박 수출 1위인 우리나라 수출 선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성능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 연구자들이 추정한바 방주의 무게가 4,000톤이므로 800개의 나무(길이 10m, 직경 1m, 무게 5톤)가 사용되었고, 방주의 뼈대인 보는 30cm×30m, 이를 연결하는 나무두께는 30cm였던 것으로 추리하였다. 이것을 1/50(2.7m)로 축소한 방주를 만들어 내부에 적재물을 넣은 후 대형수조(길이 200m, 폭 16m, 수심 7m)에서

2) 출처-http://www.worldwideflood.com/ark/modelers/Rod_Walsh.htm

인공적으로 다양한 높이, 강도, 속도의 조류, 파도, 풍랑, 바람을 만들어 **복원안정성, 구조안정성, 내항성능(파랑안정성)** 등의 안정성을 실험하였다.

또 우수성을 비교하기 위해 노아방주와 동일한 부피를 가지면서 길이, 폭, 높이의 비율이 각기 다른 12척의 다른 모형 선박을 만들어 선박의 안정성(파랑안정성, 구조안정성, 복원 안정성)에 대해 수차례의 비교 수치해석과정을 거쳤다.³⁾ 그 결과 현대의 첨단기법으로 만든 그 어느 배(12종)보다도 노아방주의 모델이 최고의 안정성을 나타내었고 ‘**노아방주의 운항안전성**’이란 제목으로 1993년 **창조과학국제학술대회논문집**에 실리기도 하였다.⁴⁾ 비록 노아의 방주가 현대의 초호와 여객선 보다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초호와 여객선 보다 다소 작은 것에서 기인하는 안정성의 약화는 방주의 재질이 나무였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최고의 비율의 배임이 확실하다.⁵⁾ 그리고 방주의 안정성 실험결과 43m의 파도에도 안정한 것이 확인되었다. 참고로 현재까지 해양에서 발생한 가장 격심한 파도의 파고가 30m 이하였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홍석원 박사는 국민일보 1993년 2월 17일자 신문에서 “현대조선공학으로 제작된 그 어느 선박보다도 뛰어난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실험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 배의 모형은 현재 **한국창조과학전시관**에 전시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조선건축가인 조지 W. **디키**박사는 미국 전함인 **오레곤호**(USS Oregon; 1891-1896 건조, 길이 108m 배수량 11,688t 승무원 473명)를 노아방주의 설계비율을 적용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이 배는 현재까지 가장 견고한 군함으로 평가되고 있다.

2회 방주 속 동물들이야기

이러한 안정성을 자랑하는 방주 속으로 홍수가 일어나기 7일전, 노아의 여덟 식구와 동물들은 한 쌍씩(정결한 짐승과 새들은 일곱쌍씩) 방주 속으로 들어갔다. 노아가 이끌어 들인 것이 아니라 동물들 스스로가 찾아 온 것으로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1주일간 방주로 모일 수 있었을까, 방주에 탄 동물들

3) WWF의 홈페이지에서 방주의 안정성 실험과 비율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Roll dynamics, Hydrostatic roll)을 무료로 다운 가능하다.

URL: http://www.worldwideflood.com/diluvia/diluvia_dl.htm

4) S.W. Hong, S.S. Na, B.S. Hyun, S.Y. Hong, D.S. Gong, K.J. Kang, S.H. Suh, K.H. Lee, and Y.G. Je, Safety Investigation of Noah's Ark in a Seaway : Creation Ex Nihilo Technical Journal 8(1):26 - 35, 1994.

URL: http://www.worldwideflood.com/ark/safety_aig/safety_aig.htm

5) 이재영. 노아의 방주에 대한 안정성 분석, 창조과학학술지 2001 제1권 제1호 pp.3-10

의 종류와 큰 동물들은 어떻게 탑승을 했는지, 1년간의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의 식량과 배설, 그리고 생활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 어떤 종류의,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탔는가.

미국창조과학회(ICR)의 우드모라피(Woodmorappe) 박사는 그의 책 "Noah's Ark : A Feasibility Study"에서 구체적으로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의 종류와 마리수를 현재 존재하는 동물들과 비교하여 포유류 7,428 마리, 조류 4,602 마리, 파충류 3,724 마리의 총 15,754마리로 암수 한 쌍씩 32,000여 마리의 동물들이 방주 내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였다. 미국의 분류학자 에른스트 마이어의 분류에 따른 오늘날 살고 있는 포유류 3,500종, 조류 8,600종, 파충류와 양서류 5,500종이 모두 승선하였다고 하여도 총 동물의 수는 17,600 마리로 각 쌍으로 계산할 경우 35,200마리의 동물을 실어야 한다. 여기서 어류를 비롯한 원생동물 대부분은 물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방주에 실지 않았을 것이다. 이 동물들의 크기는 다양함으로 평균 크기를 양(羊)만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방주는 125,280 마리의 양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므로, 방주는 실제 승선했던 동물보다 3배 이상의 동물들을 태울 수 있는 크기이다.⁶⁾

동물의 종(種)에 대한 수효	
포유류	3,500
조류	8,600
파충류와 양서류	5,500
어류	18,000
피막동물	1,700
극피동물	4,700
절지동물	815,000
연체동물	88,000
강장동물	10,000
해면동물	5,000
원생동물	15,000
곤충류	25,000
전체동물	1,075,100

나머지의 공간은 아마도 식량과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또한 2만종이상 되는 곤충은 홍수 중에도 나무 조각에 알의 상태로 견디다 환경이 맞을 때 깨어나는 것을 본다면 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

6) 헨리모리슨, 창세기 대홍수, (성광문화사), 1979, pp.71-77

도 5,000마리의 양의 부피이므로 방주는 모든 동물들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크기이다.

(2) 7일 만에 어떻게 방주로 모을까

노아가 동물을 실을 수 있는 기간이 성경대로 7일 밖에 없었다면, 그 많은 동물들이 방주에 질서 있게 빨리 탑승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 된다(창 7:4,9-10).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을 가능성도 적었기에 그 먼 지역에서 방주가 있는 곳으로 모이는 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또한 실수로 동물들이 방주에 타지 못한 종이 있었는지, 서로 잡아먹거나 다투는 일도 걱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이러한 걱정과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많은 동물들을 방주로 불러 모으셨고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창 6:20, 7:9, 7:15). 노아가 쫓아 다니며 동물을 데려다가 방주로 넣은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마음대로 움직이셨음이 기록되어 있다. 애굽의 재앙을 가져온 개구리와 파리(출8장), 메뚜기(출10장), 발람의 말하는 나귀(민 22:28),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욘1:17),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입이 봉해진 사자(단6:22),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주었던 까마귀(왕상17:6)등을 들 수 있다. 동물들에게 있는 본능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은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는 동물들의 예로 알 수 있다.



그림 3 동물들의 본성과 창조주의 섭리로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는 상상도

몇 년 전 인도네시아의 반다아체에서 일어난 지진해일을 미리 알려준 동물들의 민감함은 탁월한 청각과 시각, 후각을 비롯한 본능적 감각 덕분이라고 이야기한다. 동물들에게는 인간보다 가청범위나 시력 등 감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이주능력이 탁월하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크다. 동물들이 이러한 섭리로 이동했다면 노아의 일은 매우 줄어들 수 있고 모든 동물을 방주에 태우는 일은 더욱 쉬어졌을 것이다.

또한 이동문제와 관련해서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전 세계가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모이는데 수월했을 것이며 온도차이가 거의 없는 이유로 다양한 종들이 같은 지역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큰 문으로 동시에 여러 동물들이 탔다면 일주일이란 시간이 적은 시간은 아니다.

동물들끼리 잡아먹거나 싸우는 문제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홍수 이전에는 초식을 하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쉽게 문제가 풀린다. 실제로 육식에 대한 언급은 홍수이후에 나오며(창9:3) 최근 연구에서도 사자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풀을 뜯어먹거나, 동물을 사냥했을 때도 초식동물의 위장을 가장 먼저 뜯어 먹는 습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소화가 되지 않아 일부 식물을 약초로 먹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홍수이후 환경적인 변화요인과 아담이후 인간의 범죄로 인한 유전자의 변화로 일부 동물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육식이 생겨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방주 안에서의 식생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약 4만 마리의 동물들이 방주에 있었던 371일 동안 먹을 물과 먹이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이며 노아가 과연 준비할 수 있었을까? 먹이들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냉장고도 없이 어떻게 부패되지 않고 보관될 수 있었을까?

동물 세계에는 형편이 나쁜 환경 조건에 대처하기 위한 두 가지 유력한 수단으로 이주능력과 **동면이라는 능력**을 잠복형태로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동면중의 동물은 면역력이 높아져, 혈류가 줄어들어도 뇌나 심장이 잘 손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세기 8:1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라는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이러한 능력이 모든 동물에게 나타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⁷⁾

7) 헨리모리슨, 창세기 대홍수, (성광문화사), 1979, pp.77-86



그림 4 동면하는 동물들의 모습

동면에 대한 연구는 아직 기초단계에 있지만 여러 가능성을 최근 결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 미츠비시화학 생명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포유동물의 동면을 제어하는 '동면특이적 단백질(hibernation specific protein, HP)'이라는 이름의 호르몬을 다람쥐로부터 발견하여 2006년 4월 7일자 'Cell'에 발표했다.⁸⁾ 연구진은 다람쥐가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혈액 중의 HP 농도가 저하하는 한편, 뇌 내의 HP 농도는 상승하였고, 또 HP가 뇌 내에 들어가면 그 구조가 바뀌어 활성화된다는 사실도 밝혀내었다. HP를 제거한 다람쥐는 동면을 하지 않거나 동면 기간이 짧아지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HP가 뇌 내에서 동면을 제어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다른 최근 연구에 의하면 동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쥐에게 이산화황(H₂S)을 노출시켰을 때 동면과 같은 상태로 들어가며 이후 다시 깨어났을 때에도 전혀 신체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 되었다.⁹⁾ 이 내용은 또한 논문으로 발표가 되기도 하였다.¹⁰⁾

8) Noriaki Kondo외, "Circannual Control of Hibernation by HP Complex in the Brain", Cell 125, 161-172, April 7, 2006. 이에 관하여 URL: [http://www.cell.com/fulltext/S0092-8674\(06\)00364-3](http://www.cell.com/fulltext/S0092-8674(06)00364-3)

9) BBC news를 참고, URL: <http://news.bbc.co.uk/2/hi/science/nature/4469793.stm>

10) Eric Blackstone, Mike Morrison, and Mark B. Roth, "H₂S Induces a Suspended Animation-Like State in Mice", Science 22 April 2005: 518.

URL: <http://www.sciencemag.org/cgi/content/abstract/308/5721/518>



그림 5 마크 로스 박사와 동면호르몬 촉진물질인 황화수소를 이용한 동면실험장면

인간도 동면상태로 21일간을 버틴 보고가 있어 주목을 끈다. 2006년 10월 31일 일본 고베시의 로코산(해발 930m)에서 조난된 미츠타카 씨가 24일 만에 구조되었는데 병원에 도착한 당시 그의 체온은 섭씨 22°C, 맥박 40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극도로 낮은 생체지수였다. 장기의 활동도 대부분 중단된 상태였다. 복합장기부전 증상을 보였고 혈액 손실이 컸다. 그러나 놀랍게도 미츠타카는 어떠한 부작용 없이 무사히 깨어났다. 주치의는 미츠타카가 부상 없이 깨어날 수 있었던 이유로 동면을 들었는데 그 가능성 또한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이산화황(H₂S)이 낮은 온도와 함께 동면호르몬을 생성하게 했거나 동면상태로 만드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¹¹⁾



그림 6 동면상태로 20일 이상 조난당했던 일본인과 스웨덴인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추위와 갑작스런 압력의 감소와 같은 불안정

11)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612/h2006122216465622490.htm>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20221093511270&cateid=1046>

한 환경 가운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방주에서 대사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평소먹이양 보다 적은 양을 섭취했을 것은 분명하다. 또한 노아의 대홍수 때, 깊은 샘이 터지면서 발생한 화산가스인 **이산화황(H₂S)의 증가**로 동면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동면 외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만나(출16:14~36),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가루와 기름(왕상17:14~16)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또 다른 돌보심이 있어 기적적으로 먹이들이 공급되어진다면 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도저히 준비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창6:21)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노아는 분명 장기간 먹을 양식을 배의 부피와 동물의 수를 감안하여 말린 과일처럼 건조 상태에서 식량을 저장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다. 그리고 각 동물들의 식습성과 소비량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담도 동물들의 이름을 일일이 지어주고 외울 정도의 지혜를 가졌던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의 지혜로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근래에도 좋은 예를 볼 수 있는데 멘델은 자신의 수도원에서 있는 동안 8년간 연구하여 얻은 씨앗을 통해 약 1만 3천 가지의 식물을 재배했다. 그러면서 그는 꽃의 색과 종자의 형태 등, 자신의 실험 식물이 지닌 특징들을 주의 깊게 기록해 관찰결과를 1866년 유전의 법칙으로 요약했다.¹²⁾ 이런 예들을 볼 때 충분히 노아의 가족들이 식량준비와 배설물처리에 있어서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방주 내에서 마실 물은 노아가 방주 지붕에 빗물을 받아 음수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3회 공룡과 같은 큰 동물도 방주에 실었을까

오늘날 생존하는 동물뿐만 아니라 멸종하여 볼 수 없는 동물들까지 한 쌍씩 방주에 실었을 때에도 방주 전체공간의 1/3 공간에 해당될 뿐이다. 진화론에서는 6천 5백만년 전에 공룡이 멸종하였고 인류는 약 600만년전에 출현하였다고 하지만, 인류와 공룡이 동시대에 같이 살았었다는 많은 기록과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모든 코로 기식하는 동물 한 쌍씩을 실었다면 다양한 공룡들도 노아의 방주에 탔었음이 틀림없다. 물론 방주에 타지 못한 많은 공룡들은 노아의 홍수기간에 죽어

12) 수잔네 파울젠 저, 김숙희 역, 식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도서출판 풀빛 2002, pp.171-173

갔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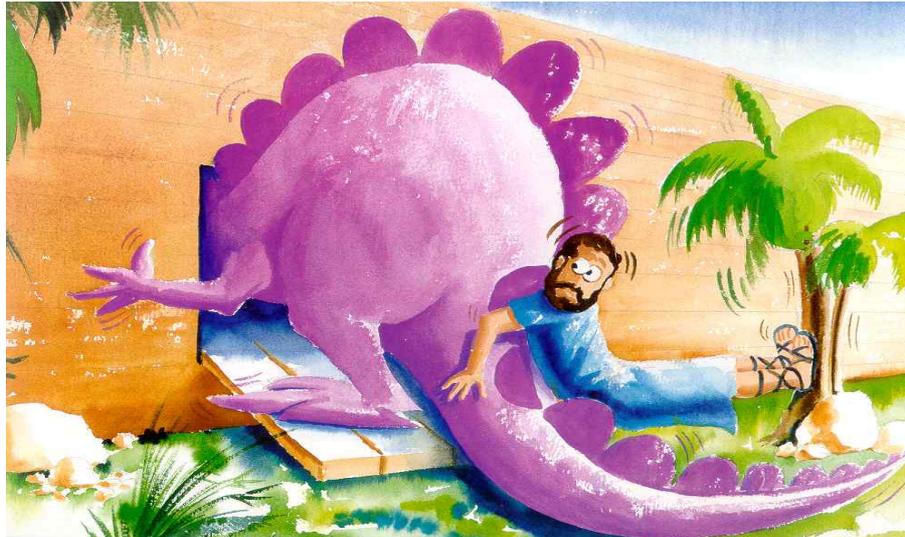


그림 7 거대한 동물인 공룡도 방주에 실었을까에 대한 그림

공룡은 668 종의 속(genera)이 있다고 하며, 10톤 이상의 공룡만 106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들 공룡 속의 숫자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생각된다. 일례로 브라키오사우르스, 아파토사우르스, 디플로도커스 등과 같이 매우 큰 공룡종의 하나인 사우로포드(sauropods)는 87종의 속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룡은 덩치도 크고 대식가이며, 배설물 또한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방주에는 아마도 공룡의 새끼들을(또는 알) 태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공룡들 중에 파충류나 날아다니는 익룡의 알을 실었을 때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파충류나 조류들은 온도와 적절한 조건에 따라 알에서 나오는 새끼의 성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¹³⁾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부화시키기도 어렵고 깨지기 쉬운 알보다는 큰 동물의 새끼를 실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파충류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동면하는 것처럼 그 당시 방주의 어두컴컴하고 탁한 공기와 물 층의 사라짐으로 인해 나타난 바깥의 추위 때문에 공룡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동면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혹 그렇지 않더라도 위에서 지적인 대로 충분한 훈련과 조사를 통해 공룡을 방주에 태우거나 사육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13) Jacqueline Jacob and F.Ben Mather, Sex reversal in chickens, Publication #FACTSHEET PS-53 이에 관하여 URL: <http://edis.ifas.ufl.edu/PS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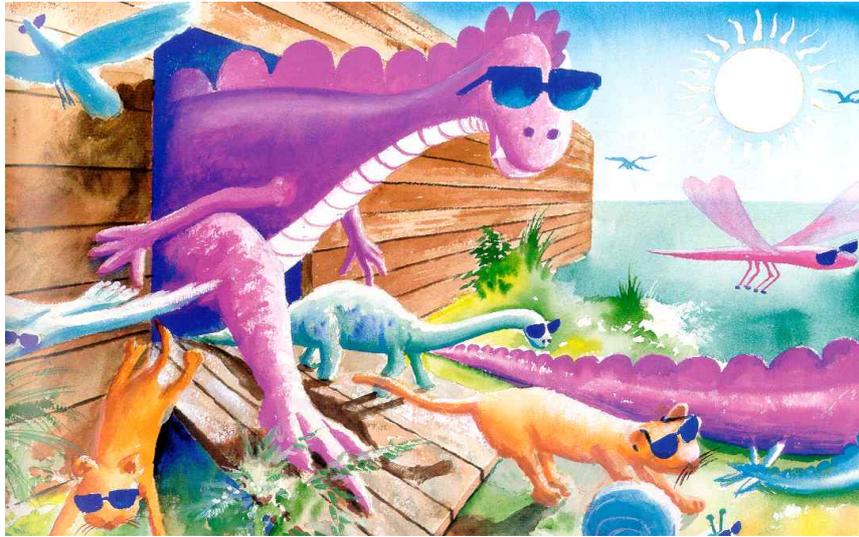


그림 8 노아의 대홍수에도 방주에서 살아남은 공룡들

공룡멸종에 대한 원인으로 창조론자들은 노아의 대홍수 영향을 들고 있다. 홍수 이전과 이후의 대기층을 비교해 보면 홍수 이전에는 물 층이 두터워 온실효과를 나타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지구의 기온이 따뜻한 아열대성 기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을 것이다. 그러나 대홍수로 인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두꺼운 물 층(water canopy)이 궁창의 열림과 함께 비가 되어 지표면으로 쏟아졌다. 홍수이후에는 물 층 효과는 사라지고 얇은 대기층으로 인해 4계절이 뚜렷해지고, 태양으로부터 자외선과 유해파가 쉽게 지구로 들어올 수 있게 되며 고압산소유지 효과가 사라지면서 각종 질병이 증대되었을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수명을 조사해 보면 홍수이후 급격히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계절의 급격한 변화, 겨울에 음식장만, 자외선 노출, 대기압의 변화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수명의 저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홍수의 격변으로 방주 밖에 있던 공룡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멸종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방주에 탔던 동물들은 다시금 종을 유지하여 번식하였을 것이기에 노아의 대홍수가 공룡의 멸종원인이기는 하나 공룡들이 홍수이후 살아남기 힘든 기후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말할 뿐 완전한 멸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즉, 창세기에 쓰여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 있던 생명체를 제외하고 사람과 공룡, 맘모스를 포함한 모든 짐승들이 물의 심판으로 모두 죽고 화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창조론자들은 주장한다.

홍수 이후 다시금 번성했던 동물들 중에 갑작스런 기후변화와 불안정한 기후상태 (단회적인 빙하기와 같은)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금씩 사라지거나 멸종한 동

물들을 우리는 일부 공룡으로 일컫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멸종은 홍수이후의 기후변화로 인한 먹이감의 부족도 있겠으나 **인간의 생존을 위해 마구잡이로 사냥했던 이유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도 점점 멸종되어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 종을 볼 때 홍수 이후부터 인간의 위협이 되었던 동물들이 사냥의 1차 대상이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능숙한 사냥꾼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했을 것이 분명하다. 반대로 쥐나 고양이 개처럼 공룡에 비해 몸집이 작고 인간에게 사랑받는 동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공룡의 멸종과 비교된다.

4회 방주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갔는데 이는 구원의 행렬이었다. 다음과 같이 노아의 방주와 홍수사건은 예수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다.

먼저 방주 자체는 구원자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방주의 큰 문은 유일한 구원의 문 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방주로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을 이끄시고 371일간 돌보신 것은 빛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보심을 상징하고 있다.

방주의 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1규빗의 창문(Window)은 바깥세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만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바른 세계관(기독교 세계관)**이다.

3층으로 만들어진 방주의 구조는 1층은 무거운 식량을, 2층은 동물들을 3층은 사람이 거주할 장소로 보고 있으며 세 부분(바깥뜰, 성소, 지성소)으로 구성되어있는 성막과 거룩한 곳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리고 방주 내부의 칸막이(間, 間, *kane*, room)는 온 우주뿐만 아니라 각 개인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고 처소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배려를 상징하고 있다.

노아의 방주, 예수그리스도 모형	
01. 구원의 방주(Salvation)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3:16)
02. 방주의 큰 문(Door)	유일한 구원의 문 되신 예수(요14:6)
03. 방주로의 이끄심과 돌보심	빛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요1:3)
04. 방주의 위에 만든 창문(Window)	참 진리를 볼 수 있는 세계관(World-view)
05. 3층 구조(300-50-30규빗)	거룩한 성막(바깥뜰, 성소, 지성소) 되신 예수
06. 방주 내부의 간(間, room)	각 개인을 위한 처소를 준비(요14:1-3)
07. 방주 371일(Triple cube Number)	거룩하고 안전한 지성소 되신 예수
08. 방주에 키와 닳이 없음(No handle)	오직 예수님만 의지
09. 재료인 잣나무와 역청	예수님의 살과 피.
10. 노아의 방주(The Ark)	갈대상자(Ark), 생명의 보호

표 3 노아의 방주에 나타난 예수그리스도 모형

방주 안에서의 371일간 생활은 숫자의 특징(세 개의 정육면체 수)처럼 거룩하고 안전한 지성소가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기간을 상징한다. 또한 방주에는 키와 닳이 없었는데 이는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방주의 재료인 잣나무와 역청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아의 방주(The Ark, תבֿחַ tabhah)는 모세를 구원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갈대상자(Ark)와 같이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구원의 방주가 과거에 살기위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그리스도는 현재 우리에게도 중요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방주의 문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넓게 열려 있었으나 때가 되자 굳게 닫힌 것처럼 마지막 때, 기회를 잃기 전에 구원의 방주되신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